

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## 이슈브리프

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관련 금융권 동향

## 국제금융시장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# 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## 이슈브리프

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관련 금융권 동향 ..... 1

국제금융시장 ..... 3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..... 7

#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관련 금융권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서대훈 (kdb14@kdb.co.kr)

- ◆ '15.9월 국제적인 약속으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, 사회, 환경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들로 구성
- ◆ 최근 연기금·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된 ESG(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)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채권 발행이 확대
- ◆ 국내외 정책금융기관들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분야를 추진사업에 맵핑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

## □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s)는 '15.9월 전세계 UN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적인 약속

- (배경) 기존 UN의 새천년개발목표(Millennium Development Goals, MDGs)가 만료됨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할 새로운 목표 제정 필요
  - 경제, 사회,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가 주요 목적

MDGs와 SDGs 비교

	새천년개발목표(MDGs)	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
기간	'02년 ~ '15년	'16년 ~ '30년
범위	사회분야 중심	경제, 사회, 환경 등 전분야 포함
해당국가	개발도상국	개발도상국 및 선진국
재원	공적개발원조 중심	국내 공공재원, 공적개발원조, 민간재원 등
감시와 모니터링	자발적으로 이행상황을 UN에 보고	UN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 권고

자료 : KoFID-KOICA(2016), "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" 재구성

- (구성) 경제·사회·환경 전분야를 망라하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
  - 목표의 이행정도는 세부목표 내 지표(Indicator)를 통해 UN이 측정 및 평가

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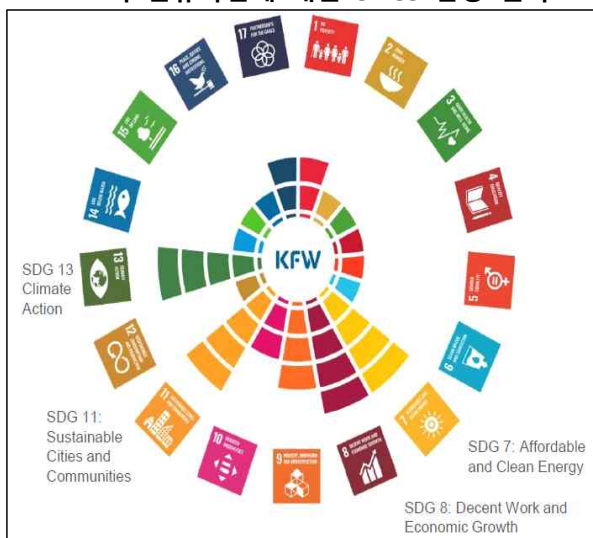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포털

□ 최근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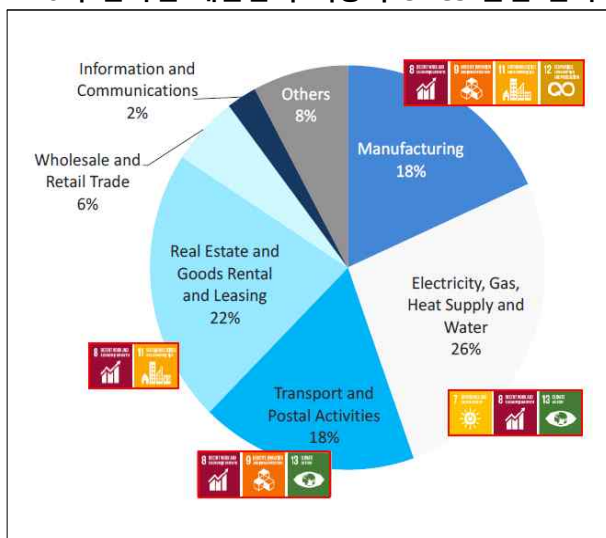
- 국내 기업들은 'ESG(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)채권\*' 발행을 확대중
  - \* 환경, 사회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채권으로 ① 그린본드, ② 사회적채권, ③ 그린본드와 사회적채권이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으로 구성
  - 기존 국책은행·공공기관 위주 발행에서 민간 금융기관·기업으로 발행주체가 확대
    - 특히, 4대 금융지주(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)의 경우 '18.8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발행규모 크게 증가('18년 0.5조원 → '19년 4.5조원)
  - 연기금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시 ESG를 주요 평가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는 점이 민간 발행확대의 주요 요인
    - 일본의 경우 일본공적연금(GPIF)의 사회책임투자 장려정책 등으로 인하여 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가 '16년 0.5조달러에서 '18년 2.2조달러로 증가\*
    - \* 한국주택금융공사(2019.6), "국내외 소셜본드 현황 분석"
  - 국내에서도 '19.11월 사회책임투자를 국내외 주식과 채권으로 확대하는 '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'이 의결됨에 따라 국내 ESG채권 발행 증가 전망
  
- 국내외 정책금융기관도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
  - 독일 KfW와 일본 DBJ는 지원사업을 SDGs 분야에 맵핑하고 지원을 강화
    - KfW, DBJ 모두 일자리와 경제성장(SDG 8), 지속가능한 도시(SDG 11), 기후 변화 대응(SDG 13) 분야에 집중
  -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출자, 사회적채권 및 그린본드의 발행 등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확대 중

KfW의 신규사업에 대한 SDGs 맵핑 결과



자료 : KfW(2019), "Rely on the safe haven"

DBJ의 분야별 대출잔액 비중과 SDGs 관련 분야



자료 : DBJ(2019), "Current Overview of Development Bank of Japan"

# 국제금융시장 2월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  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는 월중반까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으나 월말에 코로나19의 판데믹(세계적 대유행)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약세 전환하며 상승폭 축소, 원/달러 환율은 코로나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으로 급등
- ◆ **(금리, 추가)** 코로나19의 중국 외 지역 급속한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美 국채 10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으며, 美·日·유럽 증시는 일제히 폭락

□ **(환율) 달러화는 기타국 대비 양호한 美 경기 흐름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였으나 월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공포로 강세폭이 축소되었으며, 원/달러 환율은 코로나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으로 월중 1,220원대까지 급등**

- 달러 인덱스\*는 美 경제지표 호조세 등으로 월중 100pt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월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 전환
  - \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 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로존·일본 경기전망 악화 및 美 경제의 상대적 강세로 달러 인덱스는 월중 '17.4월 이후 최고치(99.867pt, 20일)로 상승하였으나,
  - 월말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 및 판데믹 공포\*로 하락 반전, 상승폭 축소
  - \* 26일 미국 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, 28일 세계보건기구(WHO)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위험도를 "높음"에서 "매우 높음"으로 격상
- 엔화는 20일까지 '19.4분기 일본 GDP 역성장(△1.6%, 전기비),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큰 폭의 약세 시현, 이후 판데믹 공포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급속하게 강화됨에 따라 월중의 약세를 되돌리며 강세 전환\*
  - \* 엔/달러 환율 추이 : (1.31일) 108.35 → (2.20일) 112.01 → (2.27일) 109.83 → (2.28일) 107.89
  - 월중반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으나, 판데믹 공포가 두드러진 28일 하루만에 엔/달러 환율이 1.76%(1.94엔) 하락
- 유로화는 월중반까지 유로존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큰 폭의 약세\*를 보였으나 월말 유로존 PMI 호조, 달러화 약세 반전 등의 영향으로 약세폭 축소
  - \* 달러/유로 환율은 20일 1.0789달러/유로로 하락, '17.4월 이후 최저치 기록

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1월말	'20.2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140	96.479	97.383	98.062	+0.70%
엔/달러	109.61	108.66	108.35	107.89	△0.42%
달러/유로	1.1456	1.1219	1.1090	1.1038	△0.47%

주 :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  
 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원/달러 환율은 월후반 코로나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으로 1,220원대까지 상승하는 급등세 시현
  - 월중반까지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\* 및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정체로 환율이 1,180원대에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으나,
    - \* 中 인민은행은 2월중 MLF(중기유동성지원창구) 금리, LPR(대출우대금리) 등 정책금리를 5~10bp 인하
  - 20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

원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1월말	'20.2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	1,115.7	1,156.4	1,191.8	1,213.7	+1.84%
원/엔	1,017.9	1,064.2	1,099.9	1,124.7	+2.25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중국 밖 코로나19 감염 급증 및 주요 관련 당국의 경고 등으로 美 국채 10년물 및 30년물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

- 중국 외 지역 감염자 급증 및 美 CDC\*, FDA\*\* 등의 경고로 인한 투자자 불안 심리 및 불확실성 증대가 안전자산 선호를 더욱 강화하여 28일 美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1.12% 아래로 내려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
  - \* 美 질병통제예방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)
  - \*\* 美 식품의약국(Food and Drug Administration)
- 수익률이 이미 마이너스인 獨 국채와 日 국채 금리도 전월 대비 추가 하락

□ (주가) 2월 마지막 주 코로나19의 중국 외 감염 급증 뉴스에 미국·유럽·일본 증시가 투자자들의 패닉 분위기 속에서 일제히 연일 하락세 시현

- 생산기지 조업도 하락 등 글로벌 공급사슬 타격으로 인한 애플, HP, MS 등의 1분기 실적 악화 예고와 美 FDA 등의 판데믹 우려 표명 등으로 투자자 공포 심리 및 위험자산 처분(risk-off)이 마지막 주 연일 하락세로 시현
  - 2월 마지막 주는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주간 성적 기록\*
    - \* 美 3대 지수가 모두 10% 넘게 폭락 : 다우지수 △3,583.05pt (△12.36%), S&P500지수 △383.53pt (△11.49%), 나스닥 △1,009.22pt (△10.54%)

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

		'18년말	'19년말	'20.1월말	'20.2월말	전월대비
금리 (%)	미국채 10y	2.6842	1.9175	1.5068	1.1486	△35.82bp
	독일채 10y	0.2420	-0.1850	-0.4340	-0.6070	△17.30bp
	일본채 10y	0.0030	-0.0110	-0.0660	-0.1530	△8.70bp
주가 (pt)	다우존스	23,327.46	28,538.44	28,256.03	25,409.36	△10.07%
	유로 Stoxx 50	3,001.42	3,745.15	3,640.91	3,329.49	△8.55%
	Nikkei	20,014.77	23,656.62	23,205.18	21,142.96	△8.89%

자료 : Bloomberg

# 국제금융시장 3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  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는 약세요인(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)과 강세요인(美 경제의 상대적 강세)이 교차되는 보합세 전망, 원/달러 환율은 코로나19 여파 지속으로 높은 수준 유지 전망
- ◆ **(금리, 주가)** 투자자 심리 쇼크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에 대한 전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□ **(환율) 달러화는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약세요인과 美 경제의 상대적 강세 유지에 따른 강세요인이 혼재함에 따라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며, 원/달러 환율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등락할 전망**

○ **달러화 : 보합세**

- 판데믹에 대한 공포, 이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(주가 급락 등)으로 美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어 달러화에 대한 약세압력 예상
  - 2.28일 연준은 “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”이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였으며, 시장에서는 3월 금리인하 기대감\*이 급속하게 강화
  - \*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WIRP(World Interest Rate Probability)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3월 FOMC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100%로 평가(추이 : 2.20일 5.9% → 2.27일 85.0% → 2.28일 100.0%)
  - '18.9월 이후 목표(2%)를 하회하는 물가상승률 역시 금리인하 기대요인 중 하나
- 그러나, 2월 미국의 CES 지수\*(56.2)가 유로존 지수(0.4)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美 경제의 상대적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 강세압력이 상존
  - \* Citigroup Economic Surprise Index란 시장전문가들의 경제지표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 발표된 수치의 괴리를 수치화한 지표로, 경제지표 실제치가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(+), 못 미칠 경우 (-)로 표시

○ **엔화 : 보합세**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술적 경기침체\* 우려,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 약세압력과 판데믹 공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및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 강세압력 혼재
  - \* 경제성장률(전기비)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

○ **유로화 : 소폭 약세**

-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및 유로존 경기 반등 지연 우려 등 약세압력 예상되나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약세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전망

○ 원/달러 환율 : 높은 수준 유지

- 코로나19 확산의 여파 지속으로 원/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- 민간소비 위축, 조업중단·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, 바이러스 확산 영향력이 본격화된 2월 경제지표 발표 등 약세압력이 우세하나,
-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환율 급등에 대한 외환당국 경계감,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급격한 상승세는 제한적일 전망
- 다만, 3월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□ (금리, 주가) 안전자산인 장기채권 선호와 주식 등 위험자산 기피로 인한 채권 시장 강세와 주식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

○ 금리 : 장기채권 시장의 강세

- 코로나19 사태의 진정국면이 얼마나 조속히 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다양한 가운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어도 당분간은 美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를 지속시켜 수익률을 낮게 묶어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

○ 주가 : 투자심리 위축

- 2월 마지막 주의 세계적인 증시 급락에서 확인된 투자자 공포 심리는 향후 코로나19 진정시기 및 각국 대응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과 함께 당분간 세계 각국 증시에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남길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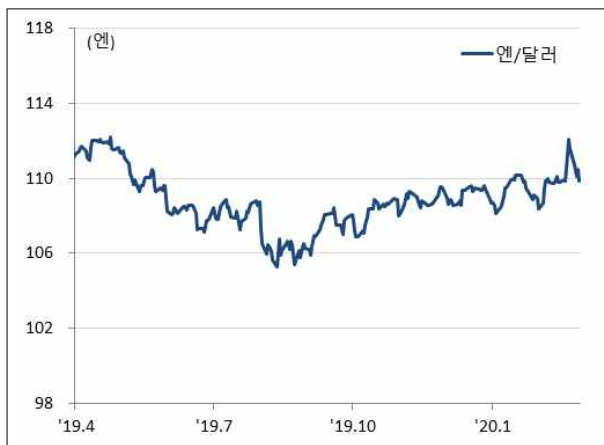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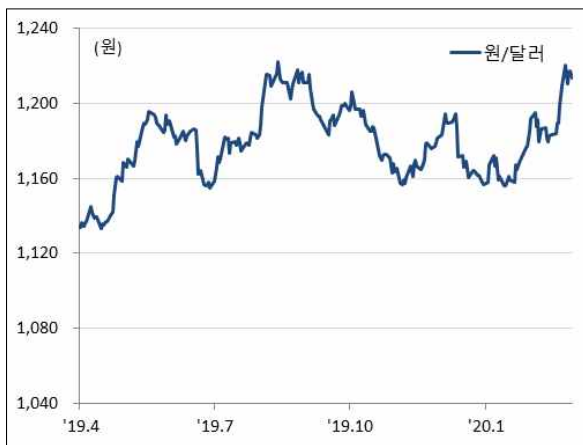
(담당자 : 환율 - 김혜진, 금리·주가 - 정대형)

# 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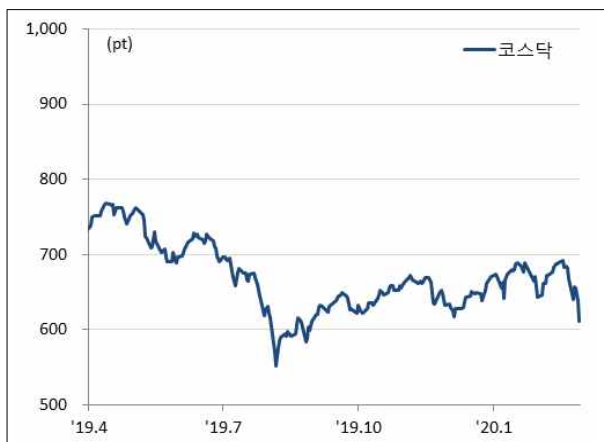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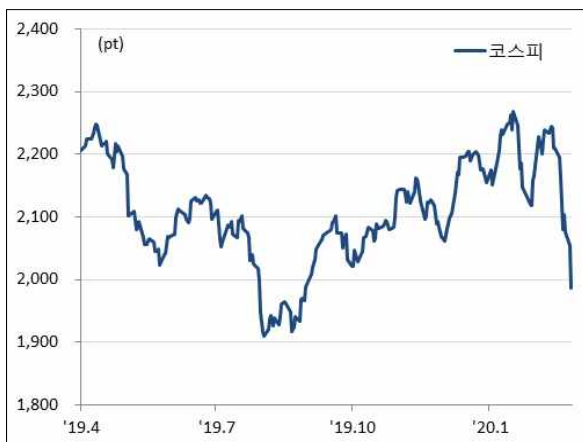
**금 리** 국고채3년 1.104% (7.8bp ↓), 신용스프레드 40.7bp (0.8bp ↓)



**환 율** 원/달러 1,213.7원 (4.5원 ↑), 엔/달러 109.83엔 (1.78엔 ↓)



**주 가** 코스피 1,987.01pt (8.13% ↓), 코스닥지수 610.73pt (8.57% ↓)



\* ( 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, 신용스프레드와 엔/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

#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68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*인터넷**            [rd.kdb.co.kr](http://rd.kdb.co.kr), [kdb.co.kr](http://kdb.co.kr)  
**문의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